5부 성경과 우리

성경론 22편 오직 성경,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 · 성경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프레임 부록 '성경주의에 가까운 원리 변호'(이하 '성경주의 변호', 부록 O로 보임) 2·3·4·5·6·8·9절 · 프레임 부록 '전통주의'(부록 P로 보임) 1~4절 · 신앙고백서 1.10(1.6·1.9와 함께) · 바빙크 4장 계시 [84], [103]–[105] · 신앙고백서 1장 1.10

> ❓ **오직 성경이라면서, 교회는 왜 신앙고백서를 외우라고 해?**

🧭 흐름 한눈에

이 편은 “오직 성경이면 고백서는 필요 없지 않나?”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프레임은 먼저 오직 성경을 정의한다. 오직 성경은 신조와 성경 밖 자료를 무시하고 혼자 맨바닥에서 읽는 '성경주의'가 아니다. 모든 자료를 쓰되 최종 판단은 성경에 맡기는 원리다. 이어서 그는 교회사라는 '사실'이 믿어야 할 '규범'을 정하지 못하므로 전통도 성경 아래 선다고 논증한다. 신앙고백서 1.10은 교회 회의와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결 아래 둔다. 이로써 고백서는 스스로 성경 아래 자리를 잡는다. 그 위에서 프레임은 오늘 복음주의 안에서 자라는 전통주의의 뿌리를 진단하고, 바빙크는 반대편 함정, 곧 성경을 교회와 앞 세대에게서 떼어 혼자 읽는 일을 막는다. 결론은 이렇다. 고백서는 성경의 자리를 빼앗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성경 앞에 세우는 선배들의 요약이다. 오직 성경은 전통주의와 성경주의 양쪽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절별 정리

📜 1. 오직 성경은 '혼자 맨바닥 읽기'가 아니다 (프레임 부록 '성경주의 변호' 2절 · 신앙고백서 1.9)

'성경주의'는 보통 비판하는 말로 쓰이며 네 부류를 가리킨다. 첫째는 일반계시(자연과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알리심)와 성경 밖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성경을 과학·경제 교과서로 쓰는 사람, 셋째는 신앙고백과 신조를 무시하고 매번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넷째는 문맥 없이 구절을 끌어다 붙이는 사람이다. 프레임은 이런 성경주의와 분명히 결별한다. 그러면서도 참된 오직 성경과 깔끔히 가르기는 어렵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오직 성경은 해석과 신학 방법까지 성경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성경 밖 자료를 쓰되 성경의 판단 아래서 쓰는 구조를 갖는다. 개혁자들도 전통을 뒤엎지 않고 '개혁'했으므로 성경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꽤 가까웠다. 신앙고백서 1.9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는 문맥을 꼼꼼히 보게 하므로 구절 끌어오기식 성경주의를 오히려 막는다.

1. 욕으로서의 성경주의 네 유형과 결별
2. 신조 무시·맨바닥 출발도 성경주의다
3. 성경 밖 자료는 쓰되 판단은 성경으로
4. 개혁자는 전통을 뒤엎지 않고 개혁했다
5. 좋은 신학은 결국 본문을 댈 수 있다

> **베드로후서 1:20-21**
>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해석의 열쇠는 개인이 아니라 저자이신 성령의 뜻에 있다(고백서 1.9)
>
>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사도행전 15:15-16**
> 야고보가 아모스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본보기다(고백서 1.9)
>
>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 **(프레임은 이 절에서 구절을 직접 들지 않음)**

"성경 외적 자료가 있지만 성경 외적인 지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존 프레임

📜 2. 전통을 존중하되, 세대마다 스스로 성경으로 (프레임 부록 '성경주의 변호' 3-4절)

웨스트민스터신학교(미국 필라델피아)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 한가운데서 세워졌다. 학교는 무오성을 굳게 지키면서도 해석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고, 원어·주석·성경신학 교육을 강조했다. 프레임이 본보기로 드는 존 머레이(1930~1966년 재직)는 교의학의 역사를 존중했다. 그러면서도 굳어 버린 전통주의와 역사의 닻을 끊는 것, 두 위험을 함께 경계했다. 그는 각 세대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단이 온다고 경고했다. 근본주의 친구들에게 "개혁파는 성경보다 전통을 의지한다"는 말을 듣던 학생 프레임에게, 거의 본문 주석으로 채워진 머레이의 신학은 개혁 신앙이 곧 성경의 가르침임을 보여 주었다. 한편 프레임은 1960년대 초 학창 시절에 고백서와 『기독교강요』를 거의 읽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고백 전통 교육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지금은 수업에서 늘 신앙고백서를 읽힌다.

1. 머레이: 전통 존중, 그러나 정체 경계
2. 두 위험: 굳은 전통주의, 닻 끊기
3. 세대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4. 오직 성경이 정체 아닌 창의성을 낳음
5. 프레임도 고백서를 읽히는 선생이다

> **사도행전 20:27 (암시)**
>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원문에 장절 표기는 없다
>
> **사도행전 20: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 3. 사실은 규범을 정하지 못한다 (프레임 부록 '성경주의 변호' 5-6절 · 바빙크 4장 [84])

인식론(“우리는 어떻게 아는가”를 따지는 학문)에서 보면, 교회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피해야 할 오류가 둘 있다. '~이다'에서 '~해야 한다'를 끌어내는 자연주의적 오류, 그리고 어디서 생겨났는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발생론적 오류다. 이것을 피하려면 교리는 교회사를 넘는 기준, 곧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오직 성경을 로마 교회의 전통관(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는 견해)과 갈라놓는다. 오직 성경 원리 자체도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 스스로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같은 잣대는 반대편에도 적용된다. 현대주의자들은 “최신 학계의 결론을 받아야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성경을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지성 자체가 아니라 지성이 따르는 기준이다. 바빙크도 종교적으로 중립인 학문은 없으며, 계시에 대한 바른 개념은 계시 자체에서만 나온다고 말한다.

1. 교회사 서술이 믿을 것을 정하진 않는다
2. 자연주의적·발생론적 오류 경계
3. 오직 성경도 성경에 근거한다
4. 문제는 지성이 아니라 지성의 기준
5. 중립적 학문은 없다(바빙크)

> **이사야 29:13**
>
>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책망하신다. 전통을 말씀과 같은 자리에 두는 일에 대한 정죄의 원형이다
>
>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 **마태복음 15:8-9**

[8]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마가복음 7:6-7

같은 말씀의 병행 본문이다.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수 없다.

프레임과 신앙고백서 1.6(7:7-8, 13)이 함께 드는 기둥 구절

골로새서 2:22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규율을 바울이 경계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 4. 고백주의는 전통주의가 아니다 (프레임 부록 '성경주의 변호' 8절)

고백주의는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진지하게 배우고 따르려는 태도다. 1996년 '캠브리지 선언'은 종교개혁의 '오직' 원리들로 고백주의를 새롭게 하자고 권했다. 프레임은 이 선언이 오직 성경을 전통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백한 점을 반긴다. 그러나 선언이 과거를 이상화하고,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려는 이유를 불신앙으로만 본다고 비판한다. 그는 고백주의를 지지하면서 여섯 가지 남용을 경계하자고 말한다. ① 고백서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두기 ② 오직 성경을 고백 전통 수용과 같게 보기 ③ 전통 밖의 생각을 무조건 의심하기 ④ 지금의 위험보다 옛 논쟁에 매달리기 ⑤ 다른 고백 전통과의 공통점 무시하기 ⑥ 공동체 안의 자기비판 막기. 참된 고백주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성기에 그랬듯 오직 성경을 되풀이해 우리를 실제로 성경 앞에 세운다.

1. 프레임은 고백주의를 지지한다
2. 남용①: 고백서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3. 남용②: 오직 성경 = 고백 전통 수용
4. 울타리 치기·자기비판 금지도 남용
5. 참 고백주의는 성경 앞에 세운다

(각주) 예수님이 전통을 말씀 위에 둔 바리새인을 꾸짖으셨다. 원칙을 지키는 듯 보이는 쪽이 오히려 전통주의자일 수 있다

[1]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고린도전서 1-3장

파당을 책망한다. 고백서조차 판정하지 않는 문제로 선을 그으면 파당이 된다(부록 '전통주의'가 이 선언 진영에 적용)

📜 5. 고백서가 스스로 정한 자리 (신앙고백서 1.10 · 1.6)

1장의 마지막 절은 신앙의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고 재판관'이 누구인지 묻는다. 후보는 넷이다. 교회 공의회의 결정, 옛 저술가(교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개인의 영적 주장이다. 고백서는 이 모두를 판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결받는 자리에 둔다.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한 분뿐이다. 고백서 자체도 웨스트민스터 총회라는 교회 회의가 만든 사람의 글이므로 이 목록 안에 선다. 고백서가 자기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고, 1.10의 논리에서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이 한 표현이 두 함정을 함께 막는다. 성경을 교회와 전통 아래 두는 쪽, 그리고 성령을 성경에서 떼어 개인 체험에 두는 쪽이다. 1.6도 같은 말을 미리 했다. 새 계시도, 사람의 전통도 성경에 더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한다. 마지막 판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위로다.

1. 최고 재판관은 단 한 분
2. 공의회·교부·사람의 가르침도 검토 대상

4. 고백서 자신도 그 목록 안에 선다

5. 판결이 사람에게 없다는 안식

마태복음 22:29, 31

성경을 모르니 오해한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마태복음 22: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 **마태복음 22:31**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한일서 4:1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개인의 영적 주장도 검증받는다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행전 17:11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확인했다(고백서 1.7·1.10이 함께 든다)

>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에베소서 2:20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다. 교회 결정보다 앞선 기초다

>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프레임과 공통인 기둥 구절

갈라디아서 1:8-9

다른 복음은 천사가 전해도 저주받는다. 새 계시를 더하는 것을 금한다(고백서 1.6)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을 판결할 최고 재판관이 있다. 공의회의 모든 결정, 옛 저술가들의 의견, 사람의 가르침, 개인의 영적 주장도 그 앞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 판결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이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0

📜 6. 전통주의란 무엇인가: 더하기와 빼기 (프레임 부록 '전통주의' 1절)

프레임은 전통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 내내 교사들을 세우셨고 지금도 그들의 글로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배우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종교개혁자들처럼 가장 존경받는 선생의 가르침도 성경으로 검증해야 한다. 전통주의는 이 원리를 두 방향으로 어긴다.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빼기',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만의 권위를 주는 '더하기'다. 프레임이 이 글에서 겨냥하는 것은 더하기의 한 방식, 곧 성경을 깊이 살피지 않고 역사적 전통을 참조해 신학 문제를 끝내 버리는 습관이다. 이 습관은 오래전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고, 근래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었다. 자유주의는 세 방법으로 전통 안에 자리를 잡았다. 한 운동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식별화', 한 운동을 오류의 표본으로 세우는 '대립', 두 입장을 '넘어서는' 균형점을 찾는 '삼각비교'다. 이 방법들도 성경이 평가 기준을 줄 때는 괜찮다. 그러나 성경 없이 쓰면 신학적 자율이

1. 전통 존중은 옳다, 성경으로 검증한다면
2. 전통주의 = 성경에 더하거나 빼는 것
3. 더하기: 사람 말에 말씀의 권위를 줌
4. 로마 교회와 자유주의의 오래된 습관
5. 세 방법도 성경 기준 없으면 자율

> **신명기 4:2**
>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전통주의를 정의하는 기준이다
>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 **이사야 29:13-14**
>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선이다. '더하기'의 실례다
>
> 13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 **마태복음 15:8-9**
>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을 책망하신다
>
>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 7. 복음주의 안에서 자라는 전통주의의 세 뿌리 (프레임 부록 '전통주의' 2-3절)

프레임은 같은 습관이 복음주의와 개혁파 안에서도 자란다고 본다. 그는 해당

역사'를 다룬 논문에는 줄 수 있다. 그래서 역사 연구에 몰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잘못도 아니지만, 성경 기준 없이 세 방법을 쓰는 습관에 빠질 위험이 있다. 둘째 뿌리는 무오성 논쟁의 피로다. 1960년대 중반부터 복음주의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지자 '중립적 역사학'이라는 공통 방법에 기대게 되었고, 이는 기준을 성경 밖에 두는 일이 되었다. 셋째 뿌리는 과거의 좁음에 대한 부끄러움이다. 예배의 깊이와 기독교의 뿌리를 갈망하다가 일부는 성공회·로마 가톨릭·정교회로 옮겼다. 프레임은 일치에 대한 갈망을 환영하지만, 오직 성경을 버리면 일치의 유일한 근거를 잃는다고 경고한다. 개혁파에서는 고백서 밖의 예배·전도 관행까지 기준으로 삼는 식별화가 나타난다. 이것은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파의 가장 기본 확신을 배반한다.

1. 뿌리①: 자유주의 학계의 상과 습관
2. 뿌리②: 무오성 논쟁의 피로와 '중립'
3. 뿌리③: 과거의 좁음에 대한 부끄러움
4. 개혁파 전통주의는 '늘 개혁'을 배반
5. 결과: 양심 속박·분열·설득력 상실

> **창세기 1장**
>
> 무오성 논쟁이 해석 논쟁(창조의 하루가 24시간인가)으로 바뀐 예다
>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 **★ 요한복음 17장**
>
>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신 기도다. 일치의 갈망은 성경적이고, 그 근거도 성경이다.
>
> **바빙크도 17:20-21을 든다(8절)**

> **고린도전서 9: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태복음 28:18-20

지상명령이다. 문화와 완전히 분리하자는 전통주의적 주장과 맞지 않는다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예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강조한다

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

"이 점에서 개혁주의의 전통주의는 완전히 반전통적이다." — 존 프레임

📜 8. 성경은 교회의 빛, 교회는 성경의 생명 (바빙크 4장 [103]–[105])

세대에게서 받는다. 계시도 넓은 의미의 대물림(전승)과 묶여 있다. 그는 계시와 성경의 관계에서 두 오류를 경계하는데, 그 가운데 성경과 계시를 떼어 놓는 쪽(“문자가 아니라 영”,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레싱의 '종이 교황' 조롱)이 훨씬 위험하다고 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고, 사도들의 말씀 안에서 사귀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사귈 수 없기 때문이다. 영감(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행위이므로, 성경을 멸시하는 것은 그 계시 행위를 부인하는 일이다. 성령의 시대에는 새로운 객관적 계시가 없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리실 뿐이며, 계시의 효과는 성경과 교회 안에서 함께 이어진다. 바빙크는 이 둘이 성령으로 떼어 놓을 수 없게 묶여 있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받은 유일하고 확실한 계시라고 못 박는다.

1. 우리는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 받는다
2. 사도의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남
3. 성경과 계시를 떼는 오류가 더 위험
4. 성령은 새것 없이 그리스도의 것을 알림
5. 성경과 교회는 떼어 놓을 수 없다

> **디모데전서 6:7**
>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서 받는다(전승의 원리)
>
>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 **★ 요한복음 17:20-21**
>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다.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 닿는다.
> **프레임도 요한복음 17장을 일치의 근거로 든다(7절)**

> **요한일서 1:3**
> 사도들과의 사귐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다
>
>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리신다. 새 내용을 더하지 않으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 로마서 15:4

기록된 말씀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위한 것이다.

신앙고백서 1.1·1.8도 드는 구절

"성경은 교회의 빛이고,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다." — 헤르만 바빙크

📜 9. 해결책: 오직 성경,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 (프레임 부록 '전통주의' 4절 · '성경주의 변호' 9절 · 신앙고백서 1.6)

해결책은 종교개혁의 원리인 오직 성경, 곧 성경의 충족성(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어 더할 것이 없다는 교리)을 다시 듣는 것이다. 프레임은 이 원리가 종교개혁의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전통적'이라고 짚는다. 성경은 율법에서도, 지혜서에서도, 정경의 끝에서도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거듭 말한다. 예배에는 성경에서 직접 끌어낼 수 없는 '정황'이 있으므로 전통이 들어설 자리도 있다(고백서 1.6).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성경에만 있다. 역사적 주장도, 문화 비평도, 교회의 신앙고백조차도 궁극적 규범이 될 수 없다.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라는 반론에 프레임은 이렇게 답한다. 기록 이전 시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자 그것이 언약 백성의 헌법이 되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시야를 좁히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다. 이 원리는 세속주의와 전통주의 양쪽에서 우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쉬운 멍에를 메게 하여 전통을 법으로 지우는 사람들의 멍에를 벗게 한다.

1. 오직 성경 = 성경의 충족성
2. 그 원리 자체가 종교개혁의 전통이다
3. 예배의 '정황'엔 전통의 자리가 있다

신명기 4:2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충족성 원리의 기본 선언이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32

예배 규례 문맥에서 같은 가감 금지를 되풀이한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여호수아 1:7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언약 백성의 헌법이다

>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잠언 30:6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지혜 문학에도 같은 원리가 있다

>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한계시록 22:18-19

성경 끝에 다시 나오는 가감 금지다. 정경 전체를 감싸는 경고다

>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디모데후서 3:16-17

프레임과 신앙고백서 1.6(3:15-17)이 함께 들고, 바빙크도 벵겔 주석으로 3:16을 끌어온다

고린도전서 14:26, 40

덕을 세우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정황을 정할 때 따를 말씀의 일반 원칙이다(고백서 1.6)

>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고린도전서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골로새서 3:17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성경이 직접 다루지 않는 영역에도 방향을 준다

>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23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일상의 일에도 성경이 방향을 준다

>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태복음 11:30

프레임은 장절 없이 '예수님의 쉬운 멍에'만 언급한다. 자유 헌장이라는 결론의 배경이다

>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언제든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새 계시라 하든, 사람의 전통이라 하든 마찬가지다."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

책	이 편의 질문에 대한 답 (한두 문장)	특별히 강조하는 것	비워 둔 것
프레임 『성경론』	고백서는 존중하고 배워야 할 좋은 선생이지만 최종 결정권은 성경에만 있다. 고백주의가 전통주의로 변하면 오히려 개혁파 정신을 배반한다.	오직 성경을 신학 방법과 문화 판단까지 밀고 나감. 전통주의의 세 뿌리와 고백주의의 여섯 남용 진단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는 일의 긍정적 신학은 짧게 인정만 한다 — 바빙크가 메운다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 4장	우리는 모든 것을 앞 세대에게 받고 사도의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난다. 성경과 교회는 성령으로 묶여 있다.	성경을 그리스도·계시와 떼어 놓는 오류가 더 위험함. 성경은 교회의 빛, 교회는 성경의 생명	이 장에서 신앙고백서와 전통 권위의 한계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 신앙고백서 1.10과 프레임이 메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0	공의회·교부·사람의 가르침·개인의 영적 주장 모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 고백서도 성경 아래다.	최고 재판관은 한 분. 전통과 개인 영, 두 함정을 함께 막음. 판결 안의 안식	1장은 고백서를 왜 배워야 하는지(긍정적 쓸모)는 말하지 않는다 — 프레임(머레이, 참 고백주의)과 바빙크가 메운다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 프레임이 메운다	(프레임은 워필드 시대부터 이어진 '성경 수호전'과 그 피로를 전통주의의 배경으로 든다)	전통과 고백서의 자리 전체
오웬 『성경의 신적 기원과 자증성』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음 (이 편 재료에 없음) — 신앙고백서 1.10과 프레임이 메운다	—	전통과 고백서의 자리 전체

신앙고백서 1.10의 원칙("모든 사람의 글은 성경 안의 성령께 판결받는다")을

바빙크는 반대편 함정인 성경을 교회와 앞 세대에게서 떼어 혼자 읽는 일을 막는다.

- 고백서 1장이 비운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는 프레임의 머레이 이야기와 '참 고백주의', 그리고 바빙크의 '교회는 성경의 생명'이 메운다.
- 프레임은 '전통 위의 성경'을, 바빙크는 '교회 안의 성경'을 강조한다. 둘을 합치면 제목이 된다. 오직 성경(프레임·고백서),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바빙크).
- 워필드와 오웬은 이 편에서 침묵한다. 다만 이 편이 딛고 선 바닥, 곧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오지 않는다는 원리는 앞 편들의 권위·자증성 논의(1.4–1.5)가 깔아 두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오직 성경
성경만이 믿음과 삶, 나아가 신학하는 방법까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

성경주의
성경 밖 지식과 신앙고백을 무시하고 혼자 맨바닥에서 성경을 읽거나 구절을 문맥 없이 끌어다 쓰는 태도. 보통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전통주의
교회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올려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태도. 전통 존중과는 다르다.

고백주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함께 고백하는 문서(신앙고백서)를 진지하게 배우고 따르려는 태도.

신앙의 모든 논쟁을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권위. 신앙고백서 1.10은 그것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라고 말한다.

늘 개혁되는 교회
교회는 성경에 비추어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파의 표어.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쓴 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

무오성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틀림이 없다는 교리.

충족성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믿음·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어 더할 것이 없다는 교리.

명료성
구원에 필요한 것을 성경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평범한 수단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말한다는 교리.

💬 청년의 삶으로

✅ 이 편의 결론

- 오직 성경은 성경 밖 자료와 신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경의 최종 판단 아래 두라는 원리다.
- 교회사라는 사실은 믿어야 할 규범을 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전통도, 학계도, 고백서도 성경 아래 선다.
- 신앙고백서는 1.10에서 스스로를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판결 아래 둔다. 고백서를 바르게 배우는 것이 곧 오직 성경을 지키는 길이다.
- 그러나 우리는 혼자 읽지 않는다. 성경은 교회의 빛이고 교회는 성경의

- 오직 성경은 전통주의와 성경주의 양쪽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다.

📚 이 편의 책별 정리 노트

- 프레임 · 성경주의(Biblicism)에 가까운 원리 변호: 신학적 방법에서 오직 ...
- 프레임 · 전통주의
- 신앙고백서 · 1장 성경에 관하여 (10절, 1647 영문)
- 바빙크 · 4장 계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